

제426회 국회
(임시회)

국방위원회 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6월26일(목)

장 소 국방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가. 국방부 소관

나. 방위사업청 소관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2

가. 국방부 소관

나. 방위사업청 소관

(11시02분 개의)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종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국회(임시회) 국방위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법 제57조 3항에 따라 본 위원이 소위원장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소위원회의 운영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소위원회는 오늘 오전 추경안을 심사해서 그 결과를 오후 전체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추경안 심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소위원장직무대리로서 추경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추경안 심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전체회의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질의하신 사항을 토대로 정리된 심사자료를 각 항목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각 항목별로는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각 항목에 대한 감액 또는 증액 등 조정해야 할 사항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수용 의견일 경우 그 취지만 짧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면서 속도감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특정 항목에 대한 토론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을 보류하였다가 추후 보류 항목만 별

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에 배석하신 담당자가 답변하실 경우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정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가. 국방부 소관

나. 방위사업청 소관

(11시04분)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종득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서 국방부장관직무대행과 방위사업청 차장 등 관계관들이 출석하였습니다.

정부 측 인사말씀은 심사 종료 후에 일괄해서 듣기로 하고 먼저 국방부 소관부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먼저 배부해 드린 국방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방부 소관 감액의견 전체 5건 그리고 증액의견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액의견부터 보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번 1번 통신요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미애 위원님께서 안보폰 통신요금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안보폰은 군 통신 간 보안 유지를 위한 휴대전화로, 최근 도입 대수 및 예산액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안보폰 도입 증가가 12·3 비상계엄 등에 활용하려는 목적이라는 의혹이 있고 대규모의 도입 필요성이 낮다고 보이므로 25년 안보폰 추가 도입 수량에 대한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종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김선호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있고, 다만 안보폰이 군 스마트폰 체계 활용 또 현장 지휘관들의 임무 여건을 위해서 저희가 21년부터 추진해 오던 사업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만약에 위원님께서 이것이 12월 3일 비상계엄과 연계된 거기 때문에…… 사업을 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 저희가 수사 관련된 방첩사나 수사기관에 배정하도록 된 게 한 1600대 정도 됩니다. 위원님이 만약 계속 삭감 의견을 내시면 그 수사기관에 배부되는 계획을 저희가 조정을 하고 야전부대 대대장급들한테 지급되도록 되어 있던 나머지 것들은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면 예산으로 보면 한 12억 정도, 올해 86억인데 12억 정도가 삭감이 되는 것으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동의하고 저희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종득 추미애 위원님이 말씀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추미애 위원 이 부분은 너무 역사적인 만큼 기록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길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는 제가 대강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은 기기값과 요금과 암호 장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 책정된 것이 114억 원 정도인데요. 이걸 보시면 22년 윤석열 정부가 시작된 해에 15.2억에서 25년 안에 114.6억, 그러면 무려 한 팔구배가 대폭 증가한 거고요. 또 계엄이 있었던 24년에 63.7억이 책정됐는데 그거에 비해도 25년도는 2배나 가까이 증액이 된 겁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행정과 사법을 군정에 통합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을 통해서 항구적 군정 유지를 위한, 전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이 위헌적이고 위법하다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결론이 난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항구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필수 장비 또는 준비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구두계약 상태라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만약에 군 스마트화라고 한다면 통신기기 분야는 주기로 보면 길게 잡아도 6개월 또는 보통은 한 삼사 개월 사이에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지요. 이걸 글로벌 경쟁이기 때문에 우리의 통신장비뿐만 아니라 다른 적성국의 통신장비도 봐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와 연동화할 수 있는 미국의 통신장비 발전 속도도 봐야 되는 것이고 또 중국 시스템도 봐야 되는 것이어서 이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구두계약을 특정사에 발주를 해 가지고 독점을 시킨다 하는 것은 굉장히 기이하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 통신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그래서 이걸 구두계약 상태인데도 이미 발주를 해서 장비가 이미 제조에 들어갔을 수 있다 이런 핑계로 굉장히 보수적으로 저희 의원실에 어제부터 계속 하지 않겠다라는 아주 저항적인 그런 연락을 계속 주셨는데, 그 어느 하나도 이 사태의 엄혹성과 또 차관님이 말씀하시는 통신장비 스마트화에 대한 미래 준비다 하는 것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얘기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적어도, 수사기관에 지급되는 또 방첩사에 지급되는 예산은 보니까 제가 26억이라고 들었습니다. 26억은 다 삭감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전 대대장한테 지급하는 스마트폰은 그대로 존치해 달라 한다면 그건 별개로 따로 계산을 해 오시고요.

저희한테 보고되기로는 방첩사에 1525대, 방첩사는 사실은 이번 불법 비상계엄을 기획한 아주 핵심 의혹이 있는 곳이지요. 거기에 전면적으로 1525대나 지급된다는 것 또 왜 이렇게 전 요원에게 준다는 겁니까? 그리고 수사기관 160대, 이 비용 26억 원은 전액 삭감이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또 국회 담당한테 무슨 비화폰을 지급합니까? 이것도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뭐 얘기하려면 끝도 없는 건데 이런 의혹들도 다 말씀하게 이 예산에서는 다 삭감이 돼야 되고요.

아까 방금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을 하셨는데 벌써 세수 핑크가 10조 원 이상 나 가지고 세입경정을 안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낭비적인 예산, 잘못 책정된 예산은 다 손봐야 된다고 대국민 설명을 하고 가셨는데 바로 지금 이 상태를 초래하는 데 일조를 한 국방부 입장에서는 가장 선도적이고 투명하게 예산을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다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종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부승찬 위원님.

○부승찬 위원 기본적으로 방첩사에 24~25년…… 언제쯤 이 안보폰이 전 부대원에게 지급된 겁니까?

○국방부차관 김선호 24년 것은 좀 확인을 하고요. 25년도는 지금 추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525대를 해서 방첩사 요원들한테 지금 현재 분배 계획 갖고 있습니다.

○부승찬 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는, 뭐 숫자는 모르겠는데 지금 비화폰과 관련해서 계엄 전 전 부대원에게 비화폰을 배분하고 사이버보안실 비화폰 서버 통화기록 삭제 방법을 연구하는 등의 지시가 있었어요. 이것 추가적으로 제가 확인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첩사가 전 부대원에 비화폰을 제공하는 게 맞나 싶거든요. 뭐 특정 임무를 하는 소수에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방첩사가 대체 어떤 부대이기에, 전 부대원에게 비화폰을 지급할 정도로 막강한 부대예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방첩사의 예하부대 편성을 지금 현재 보면 대략, 부대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여단급, 과거에 보면 연대급 이상의 부대장들한테 가는 모습입니다, 그 밑에 부대 특성상 대대급이나 제대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 부대의 지휘관들은 전부 안보폰을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통화를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부승찬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이제 기무사부터 시작을 해서 안보지원사 그리고 방첩사로 오는 과정에 24~25년도만 하더라도 2000대 가까이 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군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정보사 같은 경우 전 부대원들 다 줘야지요, 그런 논리라면.

방첩사는요 실질적으로 비화폰 업무를 할 수 있는 게 계엄밖에 없어요, 누가 보더라도. 무슨 방첩사가 전 부대원에게, 24~25년도가 2000대 가량이 늘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사이버보안실 비화폰 서버 통화기록 삭제 방법을 연구한다는 게 난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나중에 방첩사를 불러서 물어볼 건데 이런 제보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다가 왜 이런 연구를 하지요? 사이버보안실 비화폰 서버 통화기록 삭제 방법 연구 이런 것 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음흉하게 공작에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납득이 안 돼요. 이게 작전부대도 아니고 24~25년도에 2000대 이상 비화폰을 늘린다는 게, 그러면 전 부대원이잖아요. 병을 제외한 전 간부들에게 비화폰을 주겠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논리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삭감 안 할게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방첩사가 24년도는 아니었고요. 저희들이 안보폰 확대 계획에서 이제 방첩사는 저희가 25년도에 현장 요원들이라고 아까 얘기했지만 예하부대 지휘관들하고 안보폰 쓰는 지휘관들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1525대를 배정한 겁니다.

소위원장님하고 추미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방첩사 요원들하고 수사기관에 저희가 1685대를 계획을 했고요. 이것을 통신요금만 계산하면 12억이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암호장비를 추가적으로 하면 이게 대략 한 6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게 한 1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추미애 위원님께서 26억이라는 것을 삭감을 말씀하셨습니

다.

그래서 동의하겠습니다. 만약에 방첩부대에, 지금 방첩사에 배정돼 있는 예산 26억을 삭감하고 나머지 전방부대들의 지휘관들한테 정상적으로 배부되는 것은 계획대로 배분하는 것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26억인데 실제로는 12억하고 11.1억이니까 23.1억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삭감은 저희 국방부가 수용을 하고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승찬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종득 짧게 좀 하시지요.

○부승찬 위원 육해공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육해공?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부승찬 위원 육해공 작전부대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작전 보안이 필요한 부대. 그런데 소요를 다시 한번 파악해서, 그다음에 해병대까지 소요를 파악해서 그런 부분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방첩사에 이렇게 나가는 것은 누가 동의합니까? 그게 작전부대입니까, 뒷조사하는 부대이지?

이상입니다. 이것 절대 동의 못 합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종득 알겠습니다. 혹시……

○추미애 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명확하게 하고자 지금 같은 액수, 12억을 말씀을 하시니까……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종득 아니에요, 12억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이고 나중에 23.1억을 이야기하셨잖아요. 추 위원님은 26억을 이야기하셨어요. 이 갭이 뭔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추미애 위원 제가 26억을 말씀드리는 것은 방첩사 1525대하고 또 각 군 검찰단하고 조사본부의 160대하고 합치면 1685대거든요. 이 관련 예산이 총 26억인데요. 여기는 기기 값이 12억 원, 암호장비가 14억 원입니다. 이 26억을 다 삭감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국방부차관 김선호 위원님 말씀 저희가 동의하고요. 지금 그 암호장비에 대한 예산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뺐은 것은 그게 11.1억인데, 그것만 저희가 정확히 다시 한번 의원님실하고 해서 맞는 것으로 해서 그 삭감에 대한 것에 동의를 하고 나머지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미애 위원 예.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종득 다른 위원님들 의견 혹시 없으시면 넘어가지요, 이게 길게 가니까.

그러면 추미애 위원님하고 정부 측하고 해 가지고 삭감 금액을 결정해 주면 그대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종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영기본지원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종득·강선영 위원님께서 동 사업과 관련해서 관련된 세부사업인 육군 연병장 현대화 사업 추정편성예산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육군 연병장 현대화 사업은 육군 장병 전투체력단련 여건 보장과 부대관리 소요 경감을 위해 인조잔디 연병장 및 육상트랙을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사령부 및 직할대 주둔지의 경우 시멘트 등을 활용한 연병장 평탄화 작업이 충분히 가능하며 도로 달리기 도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통계자료도 없어 추경을 통해 집행할 만큼 시급하지 않으므로 해당 내역사업 예산 331억 9600만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종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김선호 임종득 위원님하고 강선영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이해했지만 저희 정부안 반영을 건의드리고요.

우리 장병들의 복지나 이런 것에 있어서 가장 체감도가 높은 게 사실은 이 인조잔디 연병장인 것은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어떤 예산의 제한성 때문에 그동안 이것을 순차적으로 조금 많이 못 했습니다. 매년 적게는 1년에 한 한두 개 해 줬고 최근에는 한 5개에서 6개 정도를 매년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추경은 6개월 남은 기간 동안에 이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는 어떤 집행의 한계성, 시기적 한계성도 있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적합한 사업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 연병장 사업은 저희가 예산만 사실 확보했더라면 요구한 걸 다 해 줘도 지금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18개소를 이번에 넣었는데 이것을 좀 해 주시면 6개월 내에 사업이 사실은 가장 안정되게 추진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장병들도 아마 혜택이 되고. 어제 강선영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육군 인사선발센터 같은 데 왜 그러면 우선순위를 이렇게 넣었느냐, 전방에도 있는데. 사실 인사선발센터라고 돼 있지만 거기 구성을 아시지 않습니까, 위원님? 거기에 보면 육군 의장대가 있고요. 선발센터 안에 있는 기존 장병들, 병사들이 있습니다. 전체 인원이 한 400여 명 되고요. 거기서 나머지 선발센터에 드나드는 임의적인 인원들은 적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도 육군 병사들이 쓰는 연병장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액 삭감하면, 물론 삭감하실 수도 있지만 국방위에서 만약에 삭감안이 올라가면 예산소위에서는 그 삭감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들 의견을 이렇게 좀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종득 강선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차관님, 제가 사랑하는 육군 연병장 만들겠다는 걸 반대하겠습니다, 취지는? 그건 아니고요. 사실은 이게 한정된 자원 속에서 저는 우선순위를 좀 따져 보고 싶었던 겁니다. 여기에는 어제는 논의 안 했지만 사실 저희가 당직근무비 인상을 부대 운영 지원 중에 기타 정책 사업으로 우리가 이번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요청을 했었는데 이게 안 됐지 않습니까?

안 돼 가지고 저희가 지난번에, 작년에 당직근무비가 일반 공무원은 평일 3만 원, 경찰 3만 원, 소방 5만 원인데 우리 군은 2만 원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주말을 보면 이게 2배

로 올라가다 보니까 3만 원은 6만 원 되는데 우리 군은 2만 원이 4만 원밖에 안 돼서 이거를 좀 산출을 해 달라고 했는데 1000억이나 든다고 안 됐습니다. 안 돼서 제가 사실은 이 300억을 깎는 거 저도 마음 아프고 눈이 아른아른합니다.

연병장 잘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죄송한데 여기 방송녹화 안 돼서 그렇지만 병사들 많이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초급 간부들 당직근무비 좀 올려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당직근무비 편성해 보니까 연간 지금 한 1000억 필요한데 이미 6개월 지났고 그다음에 이 금액을 우리가 최초 요구한 건 5만 원, 10만 원인데 5만 원, 10만 원 아니고 중간 정도에서 우리가 좀 어느 정도 합의를 하면 단번에 2만 원을 5만 원으로, 4만 원을 10만 원으로 안 올려 주더라도 지금 여기서 재원이 약 331억인데 한 300억 원 정도 조정하면 우리 초급 간부들 당직 서는 거……

당직을 진짜 얼마나 쉽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밤 새지 않습니까? 24시간 근무하고 그다음 날 쉬지 못하고 또 일주일 있으면 24시간 쉬고.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당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거를 현실적으로 다른 공무원들 수준에서 올려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다른 돈이 없으니 연병장…… 야당 위원님들, 연병장 내년에 꼭 좀 해 주시고 이거 당직근무비 올려 주시는 데 추미애 위원님, 부승찬 위원님 동의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승찬 위원 당직비 항목이 뒤에 있어요, 증액이.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종득 증액을 하기 위한 감액을……

○강선영 위원 감액을 요청을 하는 건데 그 대신 연병장은 병사들이 달리기도 해야 되는데 요즘에 환경이 안 되다 보니까 어렵고 그래서 이것도 해 줘야 되고 양쪽 다 해 줘야 되는데 우선순위를 당직근무비를 더 하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내는 겁니다, 솔직히.

○국방부차관 김선호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거를 삭감한다고 해서 당직근무비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강선영 위원 그렇지요? 압니다.

○국방부차관 김선호 사실 증액은 예결위에서 논의가 어렵고 감액을 갖고 논하기 때문에 아마 감액에 대한 것은 국방위에서 올리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감액을 할 겁니다. 그런데 증액은 별도의 논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체될 수 없는 사안이어서 우려가 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균형과 밸런스 제가 이해 못 하는 건 아닌데 뒤에 당직근무비 인상이 있기 때문에 이 감액안 이거는 좀 철회해 주시고 오히려 당직근무비 증액안을 내셔서 저희가 그걸 가지고 예결위에 가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종득 다른 위원님들 의견 한번 좀 들어 볼게요.

○부승찬 위원 연병장 현대화 사업이 지금 몇 퍼센트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방부차관 김선호 제가 전체 퍼센트는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소요는 상당히 많은데 하여튼 저희가 연 한 5 내지 6개소 정도만을 그동안은 해 왔습니다. 예산 때……

○부승찬 위원 그거와 관련된 장병들의 선호도 조사, 뭐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제가 구체적으로 선호도 조사 결과를 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이인구 군사시설기획관입니다.

말씀하신 전체 소요를 저희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병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하는 데

필요한 건 사실 좀 맞고요.

그다음에 선호도 조사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지금 이게 인조잔디냐, 흙바닥이냐에 대한 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승찬 위원 가지고 있지 않고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선호도가 그래도 그걸 현대화 사업을 했고 완비가 됐을 때 그래도 장병들의 뭐 있잖아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체감도는 높은 걸로 저희가 인식은 하고 있는데 그걸 수치로 저희가 좀 조사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부승찬 위원 그러면 좋다고요?

○강선영 위원 아니, 풋살을 하기 때문에 요즘 애들은 인조잔디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데 돈이 없으니까 깎자는 거였습니다.

○부승찬 위원 이게 사실 아까 제가 차관님 말씀이나 강선영 위원님 말씀 다 동의하는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게 사업명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이거를…… 331억인가요? 감액을 해서 이쪽으로 갈 수 있다면 좋은데 그게 사실은 사업 성격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예산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리고 차관님이 간절하게 우리 장병들 그거 하고 있다는데 좀 양해해 주시면……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종득 예, 알겠습니다.

황명선 위원님 한번 말씀하시지요.

○황명선 위원 지금 현재 체력단련 중에 부상이나 사고가 어느 정도 발생했나 최근 3년간 기록 있어요? 아시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국방부차관 김선호 제가 지금 그 현황을 숙지를 못 하고 있는데 확인을 하겠습니다.

○황명선 위원 예, 이후에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됐는데 이 편성예산에 대한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황명선 위원 지금 여기는 육군이라고 돼 있어요. 육군 연병장 현대화 사업 추정편성 예산안인데, 그래서 삭감안이 들어왔지만 이 계획들이 있습니까?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부대별로 다 계획이 있고 이제 추경이 들어가면 전체 사업이 한 6개월 정도 진행이 되면 완료가 되는……

○황명선 위원 내용은 아는데요. 계획할 때 육군만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육해공군, 해병대 있는데 이 한정된 예산을 갖고 결국은 군의 장병들의 전투 체력단련을 위해서 조금 더 안전하고 선호도가 높은 인조잔디나 육상트랙을 신설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황명선 위원 제가 국회의원 하기 전에 논산시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논산훈련소에서 가장 큰 원하는 민원이 뭐냐 이야기하니까 훈련소 안의 연병장에 인조잔디하고 육상트랙을 좀 만들어 달라고 하더라고요. ‘국방부 돈 가지고 하지요’, ‘돈이 없습니다’. 시장께서 이렇게 필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이거라고 딱 하니까 ‘이것 좀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논산시하고 충청남도가 예산을 반반 부담해서 지금 육군훈련소에 트랙을 만들었어

요, 이렇게 인조잔디하고.

예를 들면 국방부가 그만큼 장병들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이 안 되니까 해당 훈련소에 그런 요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장병들한테는. 아까 강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내용은 장병들한테 해 주지 말자라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필요한 내용도 있고 이것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종득 예, 알겠습니다.

○황명선 위원 다만 뭐냐면 육군뿐만 아니라 육해공군, 해병대사령부까지 서로 이렇게 차별받지 않도록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차 관님?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종득 황명선 위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도 사실은 감액안을 냈는데 강선영 위원하고 똑같은 취지에서 한 거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거 그냥 가지요, 감액하지 말고 갑시다. 어떻습니까?

○강선영 위원 감액하지 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종득 넘어갑니다.

○추미애 위원 저는 조금 의견을 여기에 남기고 싶어서……

제가 선거운동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관절이겠지요, 많이 걸어야 되니까. 제가 갓 제대한 젊은 친구들을 선거사무소에 많이 채용을 해서 봉사도 받기도 하고 선거운동을 같이 뛰기도 하는데 젊은 친구들이 군을 제대하고 얼마 안 됐는데요. 무릎 관절이 남아 있는 친구가 거의 없었어요.

우리 군이 지금 황명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에서 선호한다라는 게 그냥 현대화 그러니까 인조잔디로 좀 보기 좋게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젊은 사병들을 훈련시킬 때 그 관절은 평생 내내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군의 기초 체력이고 우리 국민의 체력을 유지하는 거예요. 군에 복무할 때 관절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으로 훈련을 시키셔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사실은 필요하다, 투입이 돼야 되는 우선순위에 있다. 가볍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른 훈련을 시킬 때도 그냥 단순히 전장 훈련하면서 가혹사가 발생했다 이 부분만 생각하시는데요. 무게를 많이 줄수록 무릎에 많은 영향을 미치겠지요. 그러면 전장 훈련이 단순히 가혹행위를…… 돌발 사고, 우발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아야 된다 그 관점 말고요. 갈수록 훈련을 많이 시키되 그런 관절 보호나 이런 거에, 젊은 시절에 다 닳아빠져서 없어지는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된다. 그 중요성을 거의 모르더라고요.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종득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번 3번입니다.

관사 및 간부숙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51사단 168연대 간부숙소 신축 추가편성예산 삭감이 필요하다는 임종득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동 사업은 2025년 5월 말 기준으로 본예산 약 9억 8100만 원 전액이 미집행된 상태로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내역사업에 대해 제2회 추경예산에서 추가로 편성한 4억 5000만 원의 예산에 대해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종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김선호 이거는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대관협의를 진행되는 것들이 좀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을 최종 확인을 했고요. 사업 집행이 좀 제한된다는 판단에 대해서 감액안 동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종득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거는 그냥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다음, 5페이지 되겠습니다.

경계 및 작전시설 사업입니다.

임종득·강선영 위원님께서 제8전투비행단 작전지휘부 시설 신축 선행연구 사업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내역사업인 공군 제8전투비행단 작전지휘부 시설 신축 사업은 2020년 7월 개보수를 완료하였고 시설물 안전진단 결과 양호 등급을 받았으며 신축 사업 추진 목표는 2030년에서 2034년이므로 추경안에 반영된 해당 선행연구 내역사업 예산 1억 8370만 원은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종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김선호 이것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단 선행연구 사업을 조기에 좀 해서 사업을 2년 정도 당겨서 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종득 강선영 위원님 먼저 한번 말씀하시지요.

○강선영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추경의 목표가 민생진작과 그다음에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은 사업을 바로 착수할 수 있거나 아니면 병사들의 사기진작을 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언급을 했는데 1억 8000 작은 돈인데 이거 가지고 시설 사업에 탄력을 그렇게 빨리 받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차관님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별로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철회하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종득 저도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이게 추경의 목표에 부합하느냐 하는 문제, 시급성 문제 그다음에 우리 경기에 영향을 미치느냐의 문제를 봤을 때는 좀 떨어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했는데 이걸 뺀다고 해서 증가에 영향을 안 미친다고 하니 그냥 갑시다.

어떻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임종득·강선영 위원님께서 육군학생군사학교, 해군사관학교 종교시설 진입로 보수사업 전액 삭감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육군학생군사학교 종교시설 야외계단 보수사업과 해군사관학교 호국사 진입도로 보수사업은 당초 편성된 공사 내용만으로는 시설의 근본적인 결함이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추경 편성의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해당 예산은 2026년 본예산 편성 시 소요 제기하여 일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각 사업예산 3억 5000만 원과 1억 2000만 원 합쳐 4억 7000만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종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김선호 그런데 지금 지적하실 때 전체적인, 기본적인 보수에 대한 게 아니고 준비나 설계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파악하기에는 지금 하부 콘크리트 보강 공사 또 누수 문제에 대한 보강 공사에 대한 근원적인 보수에 대한 계획들이 다 반영이 돼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계획 공사가 차질이 생기거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가능하시면 이 시설이……

사실 해군사관학교 불교시설은 지금 30년이 넘은 시설이고요. 저희가 사진으로 보더라도 사실 거기 올라 다니는 계단 자체가 지금 장병들이 어려워서…… 사실 정상적인 예산에 넣어서 가는 게 맞는데 저희가 이것도 지금 만약에 추경에 들어가면 올해 안에 빨리 공사를 해서 마무리할 수 있는 소요라고 봤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으시면 좀 승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종득 황명선 위원님 먼저 손 드셨는데요.

○황명선 위원 제가 내용을 들어 보면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임종득 위원님하고 강선영 위원님이 군에 계셨던 분들인데, 이 내용의 핵심은 결국은 병사들에 대한 종교시설 그다음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호국사, 종교시설에 대해서 콘크리트 보강, 누수, 지반 이런 안전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니깐 이렇게 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분들이, 군에 계신 분들이 반대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국방부에서 제대로 이 예산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안전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요.

저는 이것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앞으로는 국방부가 이런 예산편성 과정에서 아니면 증액 과정에서 감액 의견인 위원님들 있다 하더라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분명하게 목표와 목적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임종득 위원님, 강선영 위원님, 제가 볼 때 이 예산은 신속하게 좀 하면 우리 병사들의 안전에 도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종득 강선영 위원님.

○강선영 위원 제가 이것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에 있는 100쪽짜리 분석 다 했습니다. 제가 분석했다면 거짓말 아니라는 것 다 아실 거예요. 시비 걸고 싶어서 자꾸 말씀드

리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제가 현역에 있을 때 이렇게 추경이 편성됐을 때 진짜 상급 제대로부터 하급 제대까지 정말 긴요한 것을 다 추려서 우선 순위 안 한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황명선 위원님이 마치 저희를 좋게 띄워 주시는 것 같다가 결론은 이상하게 나서 그렇지만 군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원안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종득 지금 국방부에서 하고자 하는 안을 강선영 위원이나 제가 감액 의견을 내는 데 그 배경을 우리 위원님들도 좀 이해하셔야 되고 정부 측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보면 지금 피 같은 예산입니다. 이게 그냥 어디서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선 순위를 가지고 시급성이 있는 것을 제대로 우리 장병들의 복지로 가는 쪽으로 고민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게 너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무대행님도 그렇고 뒤에 계신 배석하신 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도 같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감액 끝났지요. 정리를 할까요?

아까 추미애 위원님이 제시하셨던 부분이 정부 측하고 논의가 된 것 같아요. 23.1억 원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예, 감액.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종득 나머지는 다 논의가……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아까 4억 5000 해 가지고 27억 6000입니다.

○강선영 위원 아니, 23.1억.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종득 아니, 23.1억. 첫 번째……

○강선영 위원 통신, 통신……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총감액 규모가……

○강선영 위원 총감액.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종득 통신만.

뒤의 것은, 나머지는 취소한 것은 취소한 대로 그다음에 유지하는 것은 유지한 대로 그렇게 가면 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증액으로 가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증액, 페이지 8쪽이 되겠습니다.

장교인건비와 부사관인건비에서 장교·부사관 시간외근무수당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백선희 위원님의 구두 질의가 있었고요.

제2회 추경예산안에 포함된 병 인건비 감액분을 활용하여 부족하게 편성된 장교·부사관 시간외근무수당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종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위원님, 추진하는데…… 저희가 시간외근무수당은 현재 부족하다고 판단은 안 하고 있거든요. 올해 한 7000억 편성이 돼 있고 작년에 대비해서 한 600억 정도 증가시켰고, 현재 집행되는 집행률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현재 편성된 7000억이면

저희가 충분히 집행이 가능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종득 강선영 위원님.

○강선영 위원 차관님, 제가 말씀드리는데는 현재 기준을 좀 변경해 달라는 건의 사항입니다. 무슨 말이나면 아시겠지만 이게 처우…… 전투부대, 지금 110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기본 시간이 있고 총액 받는 시간이 110시간 받는 부대들이 있는데 실제 그것보다 더 많이 근무하는데 기준 자체가 낮아서 못 받는 부대들을 올려 달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국방부차관 김선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 증액 문제가 아니라 시간은 제도적인 문제여서 먼저 그것을 개선하고 예산에 들어가니까 저희가 다음 논의를 할 때, 26년도 예산편성할 때 시간 개념이나 이런 것을 좀 확대하는 안을 내서 그때 정상적인 예산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종득 또 위원님들 중에 의견 없으십니까?

○추미애 위원 없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종득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증액 의견을 백선희 위원이었었는데 세부적으로 얼마를 내지는 않았습시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강선영 위원 지금은 할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현재 부족하지 않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부승찬 위원 부족하지 않다는 거니까.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종득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은 증액 자체를 없는 것으로……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다음, 9페이지 기본급식 사업입니다.

민간위탁 급식에 대한 장병 만족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식재료비 부족으로 인해 내실 있는 급식 추진이 제한될 우려가 있으므로 민간위탁 급식 사업보조비 81억 61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임종득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종득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시지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이것은 동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종득 혹시 다른 위원님들 이와 관련돼서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강선영 위원 보조비가 됩니까?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종득 그러니까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보조금, 민간위탁 할 때 드는 비용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플러스시켜 줘 가지고 현실화하자는 이야기인데……

○강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종득 제가 이 내용을 제시한 이유가 뭔가 하면 민간위탁 급식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는데 이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보조를 좀 해 주면 남은 기간 5개월 동안에 이 부분들이 현실화될 수 있겠다

는 차원에서 한 겁니다.

이것 어차피 예결위 가 가지고 논의가 돼야 되고 또 제가 예결위 위원입니다. 그래서 가서 설명을 해서 받아 오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추미애 위원 예, 통과시켜 주십시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종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10페이지, 동일하게 기본급식 사업입니다.

임종득 위원님께서 군인급식규정상 군인에게는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임을 고려할 때 훈련이라는 공무적 목적으로 영내에 거주할 경우에는 간부라하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 영내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대상 인원을 100% 반영하여 작전·훈련 시 재정 부담 심화로 인한 간부 사기 저하를 방지하고 훈련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289억 7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종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김선호 위원님 증액안에 저희 동의하는데 다만 하나, 그러니까 예산이 289억이니까 거의 한 300억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저희 사실 이번 추경 2차에 들어간 국방비 순증액이 14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300억이라는 거의 20% 이상이 되는 비중이어서, 이게 저희들은 필요로 합니다. 만약에 증액으로, 하지만 아마 예결위에서 이것을 통과시키는 것은 상당히 좀 부담이 되기는 하는데 위원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하여튼 예결위 가서 최대한 설명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종득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이것은 해 줘야겠네요.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종득 제가 이것을 제시했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간부들이 훈련을 병사들하고 같이하는데 밥값은 간부들이 내고 있어요. 그게 간부들의 사기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들은 언젠가는 해결이 돼야 될 부분들입니다.

차제에 이것을 수용으로 하려고 그랬던 이유는, 앞에서 강 위원이나 제가 감액을 많이 요구했던 이유는, 무조건 국방부의 추경예산을 높게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불요불급하지 않은 것들은 빼고 이쪽을 지금 올리려고 했던 그런 취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은……

○추미애 위원 그러면 간부들은 급식비가 따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까, 수당으로?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종득 예, 자기 돈 주고 먹는 겁니다, 훈련할 때.

○추미애 위원 급식 수당이 지급되는 것 아니에요?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종득 그것은 별도로 나오는 것은 있고요.

○강선영 위원 공무원들은 한 달에 14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종득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나옵니다.

○강선영 위원 훈련을 들어가서 먹은 밥값을, 원래는 병사들 기준액하고 간부 기준액이 다르니까 간부들은 자기 훈련 간 날을 계속 자기 돈으로 다 내는데 그 급식비가 많다는 거지요.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종득 그러면 이 규모가 크니까 일단 이대로 올리고 국방부 차원에서 기재부하고 이야기를 좀 하고 또 예결위 가서 이야기를 좀 해서, 이게 삭감이 되더

라도 이것은 내년도 예산을 위해서라도 지금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야기를 해야지 내년에 26년 예산 할 때라도 이게 반영이 되지,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황명선 위원** 임종득 위원장님의 그 말씀 그 취지는 동의를 해요. 다만 예결위 가서 이것을 디테일하게 예결위원들한테 설명하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크게 리스크로 올 것 같다는 생각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간부들 사기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 반드시 필요하지요. 그런데 조금 전에 사병들은 지원이 되고 간부들은 지원이 안 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만 디테일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종득** 그것 설명 좀 할 수 있나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지금 이 간부훈련급식비라는 것은, 간부들이 급식훈련비를 받는 것은 그냥 좀 쉽게 생각하면 근무했을 때 점심 때 식사하는 한 끼 정도, 훈련하면 세 끼를 식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부들은 이 세 끼 배당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두 끼를 간부들이 자기가 돈을 내고 먹어야 되는 부담이 있어서 이것은 부담하다고 해서 그동안 어떻게 했냐 하면 간부들이 돈은 안 냈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데서 전용을 해 가지고 이것을 대체해서 보완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하기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간부훈련급식비 보전을 정상 예산으로 편성해 달라고 저희가 요구를 했고, 저희가 25년도에 요구한 게 한 800억 정도 되는데 실제로 반영된 것은 120억밖에 반영이 안 났습니다. 앞으로 올해도 한 500 내지 600억 정도는 다른 데서 이·전용해서 그 급식훈련비를 대체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본질적으로 본예산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25년 예산에 못 들어갔고, 그런데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저희가 추경 때 이런 것을 넣었을 때 추경의 전체적인 그것하고 맞는지 여부는 아마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검토가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사실은 이것을 26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좀 더…… 지금 사실은 예결위 가서 좀 더, 지금 국회에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 의견을 넣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부훈련급식비를 정상 예산으로 편성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위원** 이해했습니다.

○**황명선 위원** 이해했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종득**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황명선 위원** 수용.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종득** 수용하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기본급식비 되겠습니다.

한기호·허영 위원님께서 지역상생 장병특식 사업은 장병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시고 현 4회를 8회로 확대 시 약 118억 63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종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김선호 이것도 앞에하고 같은 맥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의견은 동의를 하고 그러나 규모가 120억이다 보니까……

특식이 좀 준 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 14회 정도 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동안 특식을 제공했고 이 제공된 특식은 현금성으로 지급이 되고 장병들이 부대 인근지역의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거나 또 아니면 도시락을 시켜서 먹거나 아니면 푸드트럭 같은 것을 요청해서 부대 안에서 먹거나 이런 식으로 운용을 했던 겁니다. 지역상생하고도 좀 연계가 돼서 저희는 계속 추경을 했었는데, 최근에 병사들 봉급 인상 또 외식 문화에 대한 변화 또 다른 어떤 특식 제공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것이 전체적인 예산 밸런스에서는 좀 삭감을 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삭감이, 올해는 4회 정도로 편성이 돼 있었고요.

지금 이것을 전체 늘리려면 여기 예산이 없는데, 이것 장병을 하게 되면 나머지 기간 동안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118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기간이 지금 6개월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증액안 받고 예결위 가서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종득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으시면……

○황명선 위원 한 끼, 한 번 특식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병사 한 명이 어떻게 책정되어 있습니까?

○국방부차관 김선호 1만 3000원이 장병들 일일 급식비에 책정돼 있는 겁니다.

○황명선 위원 1만 3000원?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그러니까 그 정도 비용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황명선 위원 장병들의 사기 진작 굉장히 중요하지요. 특식, 정말 여건이 되는 대로 계속 확대해도 두말할 나위가 없는데 그런데 국방부에서 예를 들면 특식 제공 이게 군 장병들에 대한 사기 진작 뭐 이런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지요, 저도 병으로 제대를 했는데.

그런데 어떤 때는 9회 했다가 어떤 때는 14회 했다가 어떤 때는 4회예요. 국방부 여러분들께서 이런 제도에 대해서는 분명한 인식을 갖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국방위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이렇게 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시스템에 의해서 1년에 열두 번이다, 매달 한 번씩은 꼭 특식을 제공한다, 이렇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실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필요에 따라서 국방부 예산이 삭감될 것 같으면 이게 우선순위로 삭감이 되고 이렇게 서로 핑퐁 치는 이해관계로 예산이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장병들의 특식이나 급식 같은 이런 문제는. 아까 간부들에 대한 식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먹고 입는 것에 대해서는, 장병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색해서는 안 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매뉴얼화 해서 앞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그런 계획도 이후에 보고를 해 주시고, 저는 반드시 증액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종득 잘 알겠습니다.

강선영 위원님.

○강선영 위원 저는 정말 장병들 잘 먹여야 된다는 것 근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황명선 위원님이 군 생활할 때랑 지금이랑은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병사들 급식비 지금 1인당 1만 3000원인데요. 제가 지금 요구하고 싶었던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병사들이 밥을 잘 안 먹습니다. 봉급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서 다 PX로 가거든요. 그러면 이 특식비만큼은 어차피 식비에서 공제가 돼야 되는데 공제 안 되거든요, 이만큼.

저는 무슨 생각을 하나면 큰 틀에서 보면 특식비가 나온 그 식수만큼은 빼야 되는데 병사들은 잘 먹여야 된다는 기준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하는데 병사들한테 이걸 많이 준다고, 병사들 특식비 100회 줘도 외출 한 번 주는 것이 더 유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병사들이 특식을 못 먹는 그런 수준의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저는 이게 지역 상생의 차원으로 접근을 하신 거라고 이해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지역 발전, 병사들이 다 외출을 희망한다. 그래서 생각하는 건 이 특식비를 무한히 올리는 것보다도 지역에서 계신 분들이 병사들한테 나오면 바우처를 제공한다고 해서 병사들한테 국방 예산으로 주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병사들한테 ‘10% 할인 바우처 줄 게, 너네 나와서 먹어’ 하면, 병사들이 잘하면 바우처 1장씩 주면 그거 받은 만큼 병사들한테 외출을 주고 ‘그 돈으로 가서 먹어라’ 하는 게 병사들한테는 훨씬 유효한 제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많이 늘려도 별로 도움 안 됩니다, 솔직히.

○황명선 위원 그것도 좋은 제도입니다. 제도 좋네요.

○강선영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미애 위원 좋네요. 들어 보니 좋은 아이디어예요.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종득 강선영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국방부에서 지금 특식을 줄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고 배경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결정을 해 가지고 예산이 줄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추경에서 느닷없이 또 늘린다고 나오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기재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상당히 부족할 겁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좀 우려돼요. 이게 통과된다 하더라도 기재부에 과연 이것 설득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예요. 그러면 ‘14회 하다가 4회로 왜 줄었어?’ 했을 때 어떤 논리로 설명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결국은 강선영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지역 상생 차원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특식을 주면 이게 되고 하니까 이 부분들을 다른 방법으로 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예요.

○황명선 위원 강선영 위원님 말씀은 아주 좋은 정책에 대한 설계라고 봐요. 특식비를 제공해서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지역에 있는 먹거리 식당이나 소상공인이나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내용들을 지역의 바우처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바우처로 전환해서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해 준다, 아주 좋은 제도지요. 결국 그래도 예산은 필요한 거예요.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종득 좋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가 지금 현 정부에서 경제 활성화 차원에 포커스가 맞춰진 추경이잖아요. 그렇다면 국방부의 감액을 했다가 증액하는 궁한 논리 자체를 그 논리로 설명을 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한대행님?

○**국방부차관 김선호** 일단은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저희가 필요하다라는 논리나 필요성은 갖고 있는 것인데 사실 예산의 편성이나 균형이나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약간 조정이 됐던 것을 저희가 동의를 했던 것입니다, 기재부에서. 그런데 사실은 이 특식 문제는 아마 예결위에 가서도 통과가 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중지를 모아서 이게 꼭 필요하다고 증액해 주시면 제가 하여튼 주어진 범위 내에서 예결위 가서 잘 설명하겠습니다.

○**황명선 위원** 우리 소위에서는 증액을 반드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결위 가서 우리가 결국은, 지금 차관님도 이게 쉽지 않다라고 봐지는데 강선영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지역의 상생 쿠폰, 결국은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해서 이 소비 쿠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설계를 해 가지고 설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지요.

○**강선영 위원** 아니, 그거는 저는 예산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 할인 쿠폰을 병사들한테 지급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 돈을 상품권으로 발행한다는 게 아니라.

○**황명선 위원** 그래도 예산을 세워야 소비 쿠폰을 우리 장병들한테 줘서 지역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저는 증액을 하고 그런 형태로 예결위 가서 그렇게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강선영 위원** 소비 쿠폰이 아니고 할인 티켓을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황명선 위원** 소비 쿠폰이 됐든 할인 쿠폰이 됐든 간에 지역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잖아요, 의견 주신 것은. 그런 형태로 해서 그렇게 예결위에서……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종득**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두 분이 주체가 좀 달라요. 그렇지요? 지금 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예산을 국방부에서 태워 가지고 이걸 병사들한테 줘서 쿠폰 형태로 해서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강 위원님은 지자체에서 할인, 그러니까 만약에 1만 원짜리를 사면, 실질적으로 1만 원짜리 쿠폰을 주면 8000원만 해도 되는, 그래서 와서 또 다른 것도 더 많이 사게 함으로써 활성화시키는 이게 차이가 있는데……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국방부에서 예산을 가지고 병사들에게 이렇게 돈을 줘서 쓰게 하는 것 아니에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지금은 직접 현금을 쓰는 게 아니고요. 배정을 해 주면 가서 하면 이제 그 부대의 예산 카드에서 결제를 하고 그게 나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현금이 오가거나 쿠폰이 오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추미애 위원** 그러니까 차관님, 아이디어를 드리는 거예요. 이 예산을 줄이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증액 의견을 받아 가셔서 기재부를 설득하는 논리가, 지금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 들어가는 아이디어를 주면 통과시켜 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특식을 부대에서 지역 상생 차원에서 아마 허영 위원님이나 제안을 하셨을 걸로 보는데 차라리 그냥 특식을 부대에서 조리해서 제공하는 그 얘기가 아니라 이것을 강선영 위원님 아이디어까지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식당 쿠폰이나 이런 걸로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군인들이 휴가 나가거나 외박 나가서 특식 대신에 민간에 가서 소비하는 방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지금 말씀하신 것 제가 취지 이해했고요. 지금 저희들이 그런 방법들을 좀 고민을 해 가지고 예결위 가서 설명을 할 때 그런 식의 집행 방법을 저희가 바꿔서 하겠다 이런 논리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종득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넘어가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다음, 수송활동 사업입니다.

임종득 위원님께서서 직업 특성상 지역 간 인사이동이 잦은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현 이사화물비는 실비에 크게 미치지 못하므로 적정 수준 지급을 위해 127억 5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종득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김선호 이거는 저희가 26년도 예산 편성할 때 넣었다가 지금 반영이 안 된 영역이어서 근본적으로 예산에 대해서는 동의를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규모가 사실 이것도 130억 정도 되는 규모이고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 예결위에 가서 설명하고 또 추경에 대한 취지에서는 좀 그런데 국방위에서 정해 주시면 저희가 논리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종득 위원님들.

○황명선 위원 이사가 잦은 군 가족 현실을 반영해서 증액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런데 차관님, 이거를 단독 이사 비용을 올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독 간부들?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그 부분이 조금……

○강선영 위원 왜 그러냐면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제가 결혼을 안 한 미혼이라고 평생, 이사비 30만 원인가요? 단독 이사는 30만 원밖에 안 줘요. 그런데 결혼한 사람들은 거기다가 이사비 120만 원 주는데 사다리차, 에어컨까지 해 준다면, 요새 단독 간부 많아서 이거 올려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독 간부 아무리…… 1t 트럭 한번 불러 보세요, 얼마인가. 그래서 저는 단독 간부들이 많으니 단독 간부들 이사비를 현실화 시켜 주는 게, 임종득 위원님 죄송한데……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종득 동의합니다.

○강선영 위원 사다리차, 에어컨 설치비보다 단독 간부 이사비를 올려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종득 부승찬 위원님.

○부승찬 위원 이게 사실 지난번 소위에서도 필요성이 인정된 부분이거든요.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번 예결위에서 잘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종득 일단 올려서 설득을 좀 하고……

○부승찬 위원 간부들 보면 이사 비용과 관련돼서 정말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런 부분들을…… 아니면 그냥 한 부대에서 10년, 15년 살게 하든가.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종득 맞습니다.

○부승찬 위원 이런 논리로 갖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종득 관련해 가지고 강선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여기에도 포함이 돼 있는 게 실비를 보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인가 하면 독신자들 같은 경우는 실비 안 되고 있잖아요. 그걸 현실적으로 이사하는 데 든 비용을 가지고 주면 그게 범위 내에서는 다 보상해 주도록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강선영 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어떻게 금액으로 할 것인지는 국방부에서 판단하시되 단독 이사비 좀 올려 주십시오. 매년 30만 원씩 받았습시다, 제가.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종득 이것도 그대로 유지하는 결로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말씀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13페이지, 간부양성교육 사업입니다.

백선희 위원님이 구두 질의하신 건데요. ROTC 생활지원금 단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병 인건비 감액분을 활용하여 현 월 18만 원 수준인 ROTC 생활지원금을 월 36만 원 수준으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종득 정부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김선호 증액 취지에 동의하는데 사실 이걸 좀 더 포괄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초급간부들의 출신과 신분들이 사실 다양하게 있어서 학군장교들에 대한 배려도 학사장교, 기타들이 다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추경에 이것을 넣어서 갈 정도로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국방부 차원에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증액하는 부분은 사실 본질적으로 접근이 돼야 되니까 이거는 본예산에서 가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종득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황명선 위원 차관님, 국방부에서 적극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18만 원에서 36만 원으로 100%가 인상되는 거거든요. 인상을 하더라도 정부에서 예산을 할 때 작고 큰 이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있는 예산을 100%로 인상을 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납득이 잘 안 가요. 액수는 크지는 않은데, 18만 원을 36만 원. 이렇게 100%로 올려야 된다고 하면 과거에 18만 원 자체가 굉장히 현실화되지 못했다는 그런 내용과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황명선 위원 그래서 36만 원으로 시급하게 추경이 필요하다고 국방부에서 의견을 주셔야 위원님들이 동의가 되지 이게 납득이 잘 안 되잖아요.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종득 이거는 백선희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지금 어렵겠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맞고요.

이게 실제로 배로 한다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요. 그다음에 36만 원이 적은 돈 같은데 ROTC 후보생들의 숫자를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26년도 예산 때 세부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출신별로 고려해 가지고 하십시오.

○**황명선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종득**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제외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다음은 14페이지, 시설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백선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주거환경개선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것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포함된 병 인건비 감액분을 활용하여 주거환경개선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종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김선호** 이것도 앞하고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종득** 이것도 구체적이지가 않고 해서 26년도 예산 때 한번 검토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외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다음은 15페이지, 부대운영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임종득 위원님께서 소대지휘활동비 41억 4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셨고요. 또한 전투역량강화비 57억 5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종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김선호** 위원님, 이것도 앞하고 같은 맥락인데 저희도 이것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국방부의 안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500원 정도 됐던 것을 2년 전에 5000원으로 올려서 일단 2배 정도 올렸고 단계적으로 가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추경에서 이렇게 간략하게 논해질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본예산에서, 위원님 의도하고 이런 것 맞춰서 단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종득**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말씀하십시오.

○**강선영 위원** 통과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추경에 반영하시는 거는 동의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국방부차관 김선호**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는 동의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필요하긴 한데……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종득** 그냥 반영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들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황명선 위원** 반영해 주세요.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종득** 그러면 일단 반영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다음, 동일하게 부대운영지원 사업인데요.

허영·백선희 위원님이 내신 의견입니다.

먼저 당직근무비는 높은 근무강도 및 책임이 부여되는 당직근무를 수행함에도 유사 직종 예컨대 경찰·소방 대비 금액이 낮아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하고 있어 합당한 보상을 위해 인상이 필요하므로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평일 5만 원, 휴일 10만 원을 위한 6개월분 441억 63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강선영 위원 이거 제가 설명드릴게요. 원래는 5만 원, 10만 원 하면 441억이 6개월분인데 이거를 5만 원, 10만 원 갑자기 올리지 않고 4만 원, 8만 원으로 하면 이것의 6개월분인 294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종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김선호 당직근무비 인상은 저희가 지금 우선순위를 가장 높게 보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었는데 예산편성할 때는 여러 가지 예산편성 당부 또 이렇게 의견이 있어서 정상적으로 추진은 못 했습니다. 이것 예산이 매우 큼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 생각에서는 정상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이게 한 번 정상 예산에 들어가야 그다음부터 정상적으로 되는데 추경 때 이렇게 단계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거 결정해 주시면 하고, 사실 이거 시급성은 되게 높은데 추경에는 좀 맞지 않는 예산편성이기는 합니다. 간부들 당직근무비를 올려 주는 것이어서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가 맞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종득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어떻게 할까요?

○부승찬 위원 저는 이게 추경에 일단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을 정식으로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추경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야만 또 26년 본예산 할 때도 요구를 할 수 있고, 다만 우리가 지금 국방부 편성을 보면 불용액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대의견을 달고 가시지요, 이거 같은 경우는.

즉 말하자면 국방부는 인건비 등 관련 예산 집행률을 고려해서 이·전용을 통해서라도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한다 정도의 부대의견을 달아 주면, 뭔가 근거를 남겨야만…… 이게 시급한 거거든요. 아니, 솔직히 표에도 나타나 있지만 군은…… 뭘니까, 이것? 말이 안 되잖아요. 소방까지는 못 가더라도 최소한 경찰 수준은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가장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부대의견을 달아서라도, 이거는 뭐 이번 추경이 안 되면 부대의견을 달아서라도 우리가 이·전용을 통해서라도 이 정도 당직근무비를 주겠다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는가,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부승찬 위원 그래서 적극성을 좀 띠어 보시지요.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종득 부승찬 위원님 좋은 의견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사실 25년도 예산에 우리가 넣으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부승찬 위원 그렇지요.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종득 증액이 안 되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추경에도 한번 확보를 노력해 보고……

○국방부차관 김선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종득 부대의견을 달아 가지고 그 부분도 국방부 차원에서 노력하고, 그다음에 26년에는 반드시 좀 반영이 되도록.

○**황명선 위원** 차관님하고 여기 군 고위 관계자분들이 계신데 저는 어제 처음 기재위에서 국방위로 사보임해서 왔어요. 저는 지금 이런 내용들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국방부 지휘부는 예를 들면 당직근무비를 지금 실질적으로 이 추경에 편성을 요구하면 이게 되겠냐 이 얘기에요. 그런데 아주 필요한 일이에요.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해야지요. 25년도 예산에 왜 안 됐냐 이 얘기에요. 무슨, 일반공무원·경찰·소방 하는데 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평일 2만 원, 4만 원 갖고 군인들한테, 우리 장병들한테 사기 진작 이거 말이 되겠습니까? 국방부 지휘부는 여기에 대해서 책임져야지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2025년도 본예산에 담길 수 있도록 24년도에 뛰었어야지요. 이런 거 갖고 토론회도 열고 국민들한테도 알리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해야지요. 그런데 추경에 들어왔어요.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종득** 황 위원님, 충분히 취지가 이해가 돼서요.

○**황명선 위원** 그래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나 이거에 대한 구체적 매뉴얼은 만들어야 됩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종득** 예, 알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래서 차관님, 일단 이걸 예산 기준이, 조그맣기 때문에 올라가도 이대로 받아야 되니까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이 예산을 지금 2만 원, 4만 원 돼 있는 걸 일단 올리고 아까 부승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올리고 반영돼 있는 예산을 집행하고 부족한 건 이·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근거를 마련하려면 7월 1일부터든 8월 1일부터는 기준액을 좀 올려 주시는 것부터 먼저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절차나 규정적인 문제들을 저희가 따져서 조치하도록……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종득**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그대로 유지를 하고, 부승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대의견도 달고 해서 가는 걸로 하고요.

○**강선영 위원** 기준액을 먼저 정해야 되니까 금액을 정해야 됩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종득** 2025년도에 이거를 다 하는 걸로 협조가 다 됐어요. 제가 예결위 위원도 하고 했는데 증액 자체를 다 없애 버리는 바람에 국방부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면 증액을 얼마나 할지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종득** 이걸 나온 거 아니에요?

○**강선영 위원** 294억 원? 그건 4만 원, 8만 원이에요.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종득**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평일 4만 원, 휴일 8만 원을 위한 6개월분 해 가지고 294억 4200만 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다음은 방위사업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소위 심사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개의 사업에 증액 의견 두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인프라보강 사업 중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국방전략기술 등 미래첨단기술 그리고 비대칭 전력 분야 연구결과를 능동적으로 시험하기 위한 인프라 신규 구축 사업입니다.

다만 동 사업은 25년도 예산안 편성 시 사업타당성 조사 미완료에 따라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황명선 위원님께서 25년 착수비 4억 5000만 원 정도의 증액은 필요하다는 의견이신데요. 설계비 1억 7400만 원, 사업인건비 2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종득 정부 측 의견 말씀……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증액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미 전문위원이 보고했듯이 작년에 사업타당성 조사에서 타당성이 인정이 됐습니다. 일부 조건이 붙었는데 그거는 행정지원동을 일부 약간 축소하면서 예산이 좀 조정됐고 거기에 맞게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라는 내용이고 저희도 그게 타당성에 맞다고 봐서 거기에 따라서 사업 계획을 수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종득 황명선 위원님이 한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황명선 위원 이 센터, 국방과학연구소 산하의 무인체계 자율화 등 미래국방기술 연구를 담당할 예정인데요. 앞서 차장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이 증액 요구안은 2단계 사업의 실시 설계비하고 사업인건비입니다.

현재 1단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2단계 사업이 진행 중인데 당초 올 예산에 편성되었어야 하나 사업타당성 조사가 앞서 설명한 대로 미완료돼서 반영이 되지 못했는데 지난 24년도 12월 달에 사업타당성 조사를 조건부로 통과했고 한국국방연구원에서 검토한 사업추진계획,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정해서 증액을 통해서 설계에 착수해야 1단계에 이어서 2단계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다. 블록이 생기지 않고 사업이 신속하게 이어서 추진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제안이기 때문에 증액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종득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대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논의할 내용인데요.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다음 페이지, 동일 세부사업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인프라보강, 무인기 연구개발 활주로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사업타당성 조사 미완료에 따라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사업타당성 조사가 24년 10월에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운용계획에 대한 추가 검토를 위해 기간이 연장되어 25년 10월 사업타당성의 종료가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성일중 위원님께서 무인기 연구개발의 긴급성, 7년 이상 되는 활주로 구축 소요시간을 고려하여 향후 국방 무인기 연구개발 기간 단축 및 도전적인 무인기 연구개발을 위한 사업 착수가 시급하다고 하시고 25년 착수비 4억 300만 원의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종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여기도 증액 의견에 동의합니다.

지금 본 사업은 사타가 진행 중이기는 한데 수석전문위원이 보고드렸듯이 향후 개발 예정인 저회 차세대 무인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수요에 대응하려면 이 시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증액을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종득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의견 없으시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황명선 위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종득 그대로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소관 추경안에 대한 항목별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까지의 심사 내용에 대해 혹시 말씀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부대의견과 함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적인 조정 사항과 부대의견의 문구 조정에 대해서는 관례대로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국방부장관직무대행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김선호 먼저 감액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 정부안 의견을 받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증액 의견이 저희가 쪽 종합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1000억 이상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아마 예산결산소위에서 이걸 다 통과시키는 건 어려운데 아마 지금 7, 8건이 논의가 됐는데 국방부에서 그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라고 그러면 우리 장병들 급식비 올려서 하는 것이 한 81억 정도 되는 거 하나하고 마지막에 논의됐던 당직근무비, 초급 간부들 근무하는 이 비용이 전체 하면 한 300억이 좀 넘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이 두 가지는 국방 위원님들 의견들 해서 최대한 예결위에서도 증액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종득 다음은 방위사업청 차장님,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오늘 증액 의견해서 통과시켜 주신 그 두 건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종득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회의 진행에 잘 협조해 주셔서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추경안 심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직무대리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소위원회의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출석 위원(5인)

강선영 부승찬 임종득 추미애 황명선

○출장 위원(1인)

강대식

○청가 위원(2인)

안규백 황 희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전문위원 류승우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방부

차관 김선호

기획조정실장 이영빈

계획예산관 신태복

군수관리관 이갑수

군사시설기획관 이인구

예산편성담당관 김종덕

인사기획관직무대리 문희

군인권개선추진단장직무대리 정기현

지능정보화정책관직무대리 문성훈

정책기획관 윤봉희

보건복지관 김은성

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오혁재

예산차장직무대리 우양우

해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김태훈

예산차장 이일남

공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이태규

예산차장 김은희

해병대사령부

전력기획실장 박승일

예산처장 유정규

방위사업청

차장 강환석

기획조정관 홍미루

국방기술보호국장 한경수

재정담당관 이민휴

국방과학연구소

부소장 이정석